

대저 갈 길이 분명치 않으면 한 글자도 내려 쓰기가 어려울뿐 아니라 항상 더디고 쪼그려온 것이 병통이 되고, 요령을 얻지 못하면 두루 헤아림을 비록 꼼꼼히 하더라도 오히려 그 성글고 새는 것을 근심하게 된다. 비유하자면 음릉陰陵에서 길을 잃자 명마인 추騅도 나아가지 않고¹⁾, 굳센 수레로 겹겹히 에워싸도 여섯 마리 노새가 끄는 수레는 이미 달아나 버린 것과 같다.²⁾

진실로 능히 말이 간단하더라도 요령만 잡게 되면 마치 눈 오는 밤에 채蔡 성을 침입하는 것과 같고³⁾, 토막 말이라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다면 세 번 북을 울리고서 關關을 빼앗는 것과 같게 된다.⁴⁾

글을 하는 도가 이와 같다면 지극하다 할 것이다.

夫蹊逕之不明, 則一字難下, 而常病其遲澁; 要領之未得, 則周匝雖密, 而猶患其疎漏, 譬如陰陵失道, 而名騅不逝, 剛車重圍, 而六騾已遁矣. 苟能單辭而挈領, 如雪夜之入蔡, 片言而抽綯, 如三鼓而奪關. 則爲文之道, 如此而至矣.

- 1) 향우가 해하垓下에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포위를 뚫고 달아나다가 음릉陰陵에서 농부가 길을 거릿으로 가르쳐 주는 바람에 반대 방향으로 가서 늪에 빠졌다. 한병의 추격을 받자 마침내 자기 목을 찢러 자살하면서, “힘은 산을 뽑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었네. 때가 불리하매 추騅도 나아가질 않는도다. 추가 가질 않으니 어쩔 수 없네. 우虞여! 우여! 너를 어찌 할거나.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騅不逝. 騅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라고 노래한 데서 나온 말. 《사기》 〈향우본기〉. 여기서 쓰는 쓰려고 하는 내용이 분명치 않고 보니,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막막한 모양을 나타냄.
- 2) 한무제 때 표기장군驃騎將軍 광거병霍去病이 무강거武剛車로써 흉노의 선우單于를 겹겹이 포위하였으나, 선우가 여섯 마리의 노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 수백기만을 거느린채 한군의 포위를 뚫고 달아나버린 고사. 《사기》 권 111, 〈위장군표기열전衛將軍驃騎列傳〉 참조. 여기서는 글쓰기에 있어 입의立意 즉 주제의식의 명확치 않아, 비록 글로 쓰더라도 뜻이 성글어 독자를 납득시키지 못함을 말함.
- 3) 당 헌종 때 오원제吳元濟란 자가 채주蔡州에서 반란을 일으켜 여러 해 웅거하매, 나라에서는 여러 차례 관군을 파견하였으나 모두 패하고 말았다. 이에 이소李愬가 자청하여 토벌의 책임을 맡아서, 싸움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 적을 방심시키고, 적장 중에 투항해 오는 자를 극진히 대접하여 적정을 파악한 후, 폭설이 내리던 밤 군사가 열에 한 둘이 얼어죽는 추위를 무릅쓰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채성蔡城을 함락시켜 오원제를 사로잡아 토벌한 고사. 《신당서》 권 154, 《구당서》 권 133의 〈이소열전〉 참고. 여기서는 글쓰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펼치는 요령을 얻는데 있음을 말한 것이다.
- 4) 춘추시대 노나라 장수 조귀曹劌가 제齊나라와 장작長勺에서 싸울 때 노장공魯莊公이 북을 치려 하자 만류하고는 제나라 사람이 북을 세 번 친 뒤에야 치게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둔 고사. 나중에 장공이 연유를 묻자, 그는 “대저 전쟁은 기운을 용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북을 치면 기세가 올라가나, 두 번 치게 되면 시들해지고, 세 번 치면 다하게 됩니다. 저들은 다하였고, 우리는 가득한 까닭에 이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춘추좌씨전》 장공 10년 봄 기사에 보인다. 여기서 쓰는 말이 비록 간단하더라도 핵심이 분명하여 의 도가 명확하게 전달됨을 말함.